

동계올림픽 효자 종목 세계 최강 '여자 쇼트트랙'

“1년 뒤 평창동계올림픽, 기대가 크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강이다. 면면은 바뀌어도 실적에는 변함이 없다. 대회가 열릴 때마다 압도적인 성적을 내며 하계 종목의 양궁과 종종 비교되는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은 이미 내년 국내에서 치러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선에 두고 있었다.

여자 쇼트트랙 대표 선수들은 8일 노원구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참석했다.

오는 19일부터 일본 삿포로에서 진행되는 제8회 동계아시안게임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선수들은 개막까지 1년일을 앞둔 평창 올림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3년 전 소치동계올림픽을 통해 스타로 발돋움한 심석희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만큼 기대가 크다. 소치 때는 몰랐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두 번째 올림픽 인민극 그때와는 다르게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민정은 “앞으로는 올림픽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올림픽 전까지 부족한 점을 찾아 계속 도전할 것이다. 최대한 부족한 부분을 없애 상태로 올림픽에 출전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쇼트트랙은 앞서 치른 동계올림픽에서 총 21개의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전체 종목에서 따낸 금메달이 28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효자 중의 효자로 칭해도 아깝지 않다.

여자 쇼트트랙에서 나온 금메달은 총 11개다. 다소 부침이 겪었던 남자 대표팀과는 매 대회 꾸준한 성적을 내며 한국 동계 스포츠를 지탱하고 있다.

평창에서의 목표는 전 종목에 입상이다. 여러차례 영광을 맛본 1000m와 1500m는 물론 약점으로 지적됐던 500m까지 가져가기 위해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조 코치는 “예전에는 장거리에 치중했지만 내년 올림픽에서는 500m와 1000m, 1500m, 계주 모두 메달을 따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1500m만 준비했지만 이제는 500m와 1000m에서도 노력하고 있다. 여름 훈련을 통해 좀 더 보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팀워크가 생명인 3000m 계주는 한국이 가장 자신감을 보이는 종목이다. 여자 대표팀은 지금까지 7번의 동계올림픽에서 5번이나 이 종목 정상을 밟았다.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이 좋다고 운을 댔 심석희는 “처음 대표팀에 온 선수들이 많았는데 잘 따라와줘서 결과도 좋게 나



8일 오후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린 '2017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 대표팀 미디어데이에서 여자 대표팀 김건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왔다. 다같이 땀 흘려서 더 좋은 팀워크가 만들어졌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건희는 “처음에 계주할 때는 힘든 점이 많았는데 언니들이 가르쳐줬다. 지금은 그보다 훨씬 잘 맞는다. 체력적으로도 많

이 좋아졌다”고 귀띔했다.

고교생 김지유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설렌다. 올림픽에 나간다면 최선의 기량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김민근기자

전북현대, 유소년팀 춘계 대회 출전 시즌 돌입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백승권)의 유소년 팀이 춘계 대회 출전으로 2017 시즌의 출발을 일린다.

전북현대 산하 유소년 U-12, 15(김재준, 18(전준영, 19(전준영)에는 각 연령별 춘계 대회에 출전해 겨우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인다.

전국대회 정상을 노리는 U-15세(수) 경북 울진에서 열리는 '스타스포츠 춘계 한국중등축구대회'에 출전해 유소년 팀의 첫 시즌을 일린다.

이번 대회에 처음 출전하는 U-15세는 첫 출전부터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U-12, 18세는 최고의 전봉을 자랑하고 우리 지역 군산에서 개최되는 금석배 출전한다.

먼저, U-12세가 고학년-11일(토)/저학년-14일(화) 첫 경기를 시작으로 정상권 진입에 도전한다. 특히 지난 해 저학년 준우승을 했던 전북 U-12세는 올 해에는 반드시 정상을 차지해 지난해의 아쉬움을 씻는다는 각오다.

U-18세도 11일(토)부터 시작하는 금석배 고등부 출전해 제주 유니티드 U-18세와 맞붙는다. 프로 산하 팀간의 자존심 대결을 펼치게 되어 더욱 흥미를 끌고 있다.

영생고 인제석 감독은 “시즌 첫 대회에 큰 부담이 있지만 동계 훈련을 잘 소화한 만큼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선수들을 믿고 자신감 있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출전 소감을 전했다.

/김민근기자

SG워너비 김진호, 새 싱글 '졸업사진' 16일 발표

그들 SG워너비 김진호가 새 노래 '졸업사진'을 내놓는다. 김진호는 8일 오전 공식 SNS를 통해 디지털 싱글 '졸업사진'을 오는 16일 자정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귀 소식을 알리며 자신의 초등학교 졸업 사진이 담긴 신곡 포스터도 함께 공개했다.

김진호가 솔로로 가요계 복귀하는 건 2014년 9월 발표한 정규 2집 앨범 '사람들'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졸업사진'은 김진호의 대표곡 '가족사진'을 잇는 자작곡이다. '가족사진'이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곡이었던 만큼 '졸업사진'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김진호는 2004년 SG워너비로 데뷔한 후 10년만인 2013년 1집 앨범 '오늘로 솔로 활동을 시작했다.

/뉴시스

'호텔 먹튀 논란' 김준수, SNS 통해 '명에 훼손 넘은 인격 살인' 심경 밝혀

그들 'JYJ' 김준수(30)가 7일 '호텔 먹튀 논란'에 대해 "이것은 명예 훼손을 넘은 인격 살인"이라고 밝혔다.

김준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제가 슈퍼카를 소유하고 좋은 집에 사는 배경에는 비도덕과 부당 이익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단 한번도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이익을 취득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호텔 소유자로 경영에서 이익을 내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그럴 때마다 연예 활동으로 벌어들인 개인 소득을 호텔 경영에 보았다. 직원들 월급을 지키기 위해 개인 부당소득이나 재산을 처분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김준수는 그러면서 "부당 이익을 취하거나 비도덕적 행위를 한 바 없다. 또 관계자들도 매각 배경을 알고 있고 또 수년간 제주를 위해 갖가지 일정과 프로젝트에 동참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사는 반대였다. 저는 먹튀였고 공공의 돈을 취득한 사람처럼 순식간에 결론이 내려졌다. 허겁니다. 정말 아닙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고 아무리 외치고 해명해 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시스

“대한민국 시장 중요성·가능성 크게 봤다”

소니픽처스, 국내 철수 2년여만에 한국지사 재출범

소니픽처스가 국내 철수 2년여만에 한국지사를 새로 출범하고 주요 작품 라인업을 공개했다.

소니픽처스는 8일 "이달부터 한국지사 사를 새롭게 오픈하고 본격적인 배급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소니픽처스는 1990년대 컬럼비아트라이스타 한국지사로 국내에 진출한 이후 배급사업을 진행해오다 24년 만인 2014년 말까지 사업 종료 후 철수한 바 있다.

이후 소니 계열 영화는 직배사 UP를 통해 국내에 배급돼왔다.

소니픽처스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HS에 따르면 한국 영화시장은 2015년 북미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 5위의 시장으로 성장했다"며 "특히 지난해 기준 1인당 연간 영화 관람 횟수는 4.2회로 세계 최고 수준일 정도로 여느 나라 못지않게 영화를 사랑하는 나라"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지사의 재출범은 이러한 대한민국 시장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크게 보고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니픽처스는 한국지사 출범과 동시에 올해 선보일 주요 작품 라인업도 함께 공개했다. 소니픽처스 한국지사에서는 선보이는 첫 작품은 오는 4월 개봉 예정인 '라이프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던 미지의 화성 생명체가 도리어 인류를 위협하기 시작하고 최초의 발견자였던 6명의 우주인들이 인류 구원을 위해 마지막 항해를 시작하는 SF 재난 스릴러다.

이와 함께 여름에는 소니픽처스와 마블이 함께 선보이는 첫 스파이더맨 시리즈 '스파이더맨: 홈커밍'과 스티븐 킹의 판타지 대하소설을 원작으로 한 다크 타워 등 블록버스터 작품들을 연이어 개봉한다.

하반기에도 음악과 액션을 포함한 신



개념 장르인 '베이비 드라이버', SF액션의 교과서라 불리는 '블레이드 러너' 후속편이자 해리스 포드·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블레이드 러너 2049'가 관객들을 찾는다.

또 2010년 첫 개봉 이후 전 세계 총 2억5900만달러, 제작비 대비 54배 흥행 수익을 기록한 공포영화 '인사이드'의 네 번째 시리즈와 액션 어드벤처의

원조 '쥘리안'의 두 번째 이야기를 그린 '쥘리안'이 개봉될 예정이다.

소니픽처스 관계자는 "올 한 해 블록버스터부터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장르의 화려한 라인업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국내 관객들이 열광할 만한 새롭고 흥미로운 작품들이 다수 개봉될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뉴시스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